

한국 주식도 소수점 거래 가능해진다



▲ 사진=shutterstock

오는 9월부터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뿐만 아니라 한국 주식도 소수 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 주식의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액 투자자들도 주당 가격이 높은 우량주를 살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10만원만 투자하는 경우 기준에는 1주당 100만원인 주식을 살 수 없었지만, 소수 단위 거래 가능해짐에 따라 0.1주만 살 수 있다. 이 서비스는 24개 증권사가 올해 9월부터 전산 구축 일정 등에 따라 차례로 선보일 예정이다.

소수 단위 매매를 위해서는 투자자의 소수 단위 주식 주문을 합산하고, 부족분은 증권사가 스스로 메우는 방식으로 온주(온전한 주식 1주)를 만들게 된다. 이후 거래가 체결돼 취득한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때 각 증권사가 자기 재산으로 취득하는 주식 수를 종목별로 5주 이내로 제한하고,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위는 "종목 당 최소 투자금액이 낮아서 주식투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수익 다양화를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소규모 투자금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어 투자자의 위험관리와 수익 다양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약 절반은 국민연금 못 받아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절반가량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연금제도 개선으로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7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 사회위원회는 이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연구한 '연령통합적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을 받는 이들은 54.9%로 집계됐다. 절반에 가까운 45.1%는 주요 노후 소득 보장망인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 평균 급여액도 2020년 기준 월 54만1,000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 기준(52만7,000원)과 비슷하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클 뿐만 아니라 수급자들이 충분하다고 느낄 만큼의 금액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과 별개로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30만원 씩 주어지는 기초연금도 있지만 기초연금은 노후 안전망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절반가량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shutterstock

보고서는 이 같은 노후소득 보장망의 부재가 55~64 세 중고령자들이 '생계형 취업'을 선택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생계형 취업에는 자영업과 낮은 질의 임시직 등이 포함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 중고령 근로자 중 자영업자 비율이 37.9%로 OECD 평균(21.1%) 대비 16%포인트가량 높았다. 임시직 비율도 30.4%로 OECD 평균(7.4%)의 4배를 넘겼다.

전국 주택 매매·전셋값 상승폭 둔화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전세·월세 가격 상승폭이 모두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추가 금리 인상 전망 등에 따른 매수심리 및 거래 활동 위축이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전국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 포함) 매매가격은 전달보다 0.10% 올랐다. 지난해 8월 0.96% 오른 이후 5개월 연속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0.04%)과 경기(0.05%), 인천(0.12%)도 지난해 12월보다 상승폭이 줄어 수도권 전체 주택가격 오름 폭이 0.33%에서 0.06%로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정비사업 호재 있는 단지나 중대형 위주로 주택가격이 상승했으나 시장 불확실성 증가로 매수 심리와 거래 활동 위축세가 지속돼 수도권 전체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북의 경우 노원구(-0.08%)와 은평구(-0.05%), 성북구(-0.04%) 등이 중저가 위주로 매물이 적체되고 급매물 위주로 간헐적 거래되며 하락 전환했다. 강남은 서초구(0.12%)와 송파구(0.09%), 강남구(0.07%)의 상승에도 매수세 위축으로 11개구 전체 상승폭이 축소됐다.

전세와 월세 가격도 안정세다.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07%로 전달(0.25%)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0.04%)과 인천(0.02%)은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01%)는 신규 입주률량이 증가하며 하락 전환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0.25%에서 0.01%로 오름폭이 줄었다.

주택 종합 월세 가격 상승폭은 전달(0.22%)보다 축소 0.16%를 기록했다. 서울(0.11%)과 경기(0.20%), 인천(0.26%) 모두 가격이 상승했으나 전달과 비교해 그 폭이 줄었다.

YouTube "건강한발TV"를 검색, 구독/좋아요/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정보를 받아 보세요!

강현국 김상엽 발&발목 전문센터

Southern California Foot and Ankle Center

- 전문 발&발목 질환 진료과목 -

- 발 통증 (Plantar Fasciitis)
- 평발 (Flat Feet)
- 무지외반증 (Bunion)
- 작은발가락 기형 (Hammer toe)
- 당뇨병성 질환 (Diabetic Ulcer, Neuropathy)
- 내성 발톱질환 (Ingrown Toenail, Fungal Toenail)
- 신경증 (Neuroma)

- 발통증 (Gout Attack)
- 발·발목 골절 (Foot and Ankle Fracture)
- 사마귀 (Plantar Warts)
- 무좀 (Athlete's Foot)
- 아킬레스 건염 (Achilles Tendonitis)
- 발 성형수술 (Foot Plastic Surgery)
- 소아 안짱다리 교정 (Intoe gait)

★ 레이저 곰팡이 발톱 치료 Special ★

각종 보험 PPO, HMO, Medicare, 저렴한 Cash Plan

LA 월~금 9am~1pm/ 2pm~6pm 토 9am~2pm
OC 월~금 9am~12pm/ 1pm~5pm 토 9am~2pm
Torrance 월~금 9am~12pm/ 1pm~5pm

**당뇨 신발
보험 적용 & 문의 환영**

**Medi-Cal
0세부터 20세까지**

강현국

Hyun Kang DP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S
Medical Education: School of Podiatric Medicine at Barry University
Residency: Kendall Regional Medical Center, Trauma Surgery Center
Hospital Affiliation: La Palma Intercommunity Hospital, West Anaheim Medical Center

김상엽

Sang Kim DP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S
Medical Education: School of Arizona Podiatric Medicine at Midwestern University
Residency: Bridgeport Hospital Yale New Haven Health
Hospital Affiliation: La Palma Intercommunity Hospital, West Anaheim Medical Center

LA Office

213) 352-1090
520 S. Virgil Ave. #105
Los Angeles CA 90020

OC Office

714) 735-8588
5451 La Palma Ave. #26
La Palma, CA 90623

Torrance

424) 305-4417
3400 Lomita Blvd. #305
Torrance, CA 90505

FAX 562)249-8443

TALK ID : scfoot
scfootnankle@gmail.com